

## 인사말

종정예하의 정진과 지혜의 덕화를 존경하며, 원로의장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고견과 격려를 항상 공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원로스님들께서 이루신 공덕에 누가되지 않도록 종단 운영에 면밀함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원로회의에서 제34대 총무원장으로 인준해 주신 것을 종단과 불교 중흥을 위해 진력하라는 격려로 여기어 원력과 공심으로 헌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소임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로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단 내부의 분위기를 일신하면서, 불교가 사회 현실을 바로 보고 우리의 이웃과 중생의 삶을 함께 보듬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무행정을 개선하고 집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단은 중앙과 지방이 효율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종무행정의 안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사찰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야 하며 교구가 중심이 되어 종무행정을 책임있게 실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조계사를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일은 종도와 불자의 오랜 염원이었기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한 걸음씩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가 호국불교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역사를 이어왔듯이 현시대는 문화의 조화로움과 삶의 지혜로움이 시대의 호국임을 인지하여, 이 시대 새로운 호국 불교의 상징으로서 조계사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였던 과거와 달리 현시대의 큰 변화는 승가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승가 고유의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제도를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가 수행자들이 안정적으로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간의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사업을 골격으로 한층 발전하는 종무행정을 통해 불교 중흥의 공든 탑을 쌓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며, 이에 언제나처럼 원로스님의 고견과 격려를 소중히 경청하고 소임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원로스님의 근념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청안을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11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